

* KIET 해외출장보고서 07-24

해외출장보고서

-한중간 FTA 산관학 제3차 회의 참석 등 -

2007.10.

이문형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I. 출장개요

- 출장자 : 이문형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 출장 기간 : 2007.10.22(월)~10.28(일)
- 출장지 : 중국 위해, 북경
- 출장 목적
 - 한중 FTA 산관학 제3차 회의 참석(중국 위해시 개최)
 - 산업자원부 교부금 사업과제, “2007년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구축” 과제 수행을 위한 현지 투자기업 현황 파악 및 자문위원 위촉
 -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한중간 해외투자 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산업자원부 후원,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공동 개최 예정) 관련 중국측 주제발표자 선정

II. 방문 내용

1. 한중 FTA 산관학 제3차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기간: 2007년 10월 23일(화)-26일(금)
 - 장소: 위해시 Blue Sky 호텔
- 참석자
 - 한국측: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45명

- 중국측: 상무부 관계자와 약 50명

□ 주요 협의 내용

- 총론, 제조업, 서비스 및 투자, 농림수산업 등
- 구체적 회의 내용은 현재 양국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 외교통상부가 일괄 발표할 예정에 있어 여기서는 생략

2.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1) 산동성 위해시 한인상회 간부진 면담

□ 면담 개요

- 면담 목적: 위해시 투자현황과 애로사항 파악 및 중국경제 모니터링 자문 위원 위촉
- 일시: 10월 22일(월) 18:00-21:00
- 장소: 위해시 놀부명가(한식당)
- 면담자: 6명
 - 위해시 한인상공회 수석부회장 우정봉(기계정밀가공업)
 - 부회장 이호열(위해삼흥어구)
 - 사무국장 이승호
 - 위해한인상회 환취구 지회장 이학동(원미복장)
 - 위해한인상회 환취구 수석부회장 김석환(세원어구)
 - 김문규 위해부전전자 총경리

□ 주요 면담 내용

- 위해시에는 현재 2,500-3,000개 정도의 한국인 업체들이 조업중에 있으며
위해한인상회에는 그중 600개 업체가 가입
 - 위해시 한인상회는 중국 한인상회의 위해 대표처를 허가를 받음(중국에
서는 유일한 사례로 타 지역과 달리 법적인 신분이 있는 상황)
-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외장정책 변화에 의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
 - 금년 들어 5대보험(양로, 실업, 의료, 사회보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늘고 있으며, 그동안 우대하였던 외자기업들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으로
전환
 - 공회(노동조합) 설립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회비(전직원 급여
의 2%)를 지방 세무서에 위탁하여 강제 징수하려고함. 또한 공회비 징
수시 사장 인건비도 포함시켜 징수함. 징수한 금액의 40%는 구정부에
서 사용하며, 60%는 회사 공회에 돌려줌.
- 외자기업의 이익이 많은 기업에게는 각종 준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
방정부 차원의 징수 항목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쓰레기 비용 징수로 근로자 1인당 월 1위안씩 징
수하고 있으며, 수리국은 지하수 사용 입방미터당 월 3위안씩 징수
 - 수무국은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의 60%씩 징수
 - 지방 당국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1.5%를 지키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취업 보장금(월급여의 1.5%)를 징수하려고함.
- 특히 최근 통과된 신노동계약법은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중시한 것으로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음.

- 퇴직금과 사회보험 의무강제 가입에 따라 실질 인건비가 인상될 전망
-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직원대표자회의에서 토론하도록함.(공산당 잔재)
- 중국에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어항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짐.(김문규 총경리)
- 중국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
 - 중국이 법제화되고 시장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 변화와 산업동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
-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중국 현지 방문시 중국 관료들에게 투자여건 개선을 요구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
 - 한국 관계당국의 중국 현지 방문시 우리 기업을 위해 모 지역 해외투자 담당자들에게 투자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그 지역 중국시정부 투자담당자들의 현지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져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함.

(2) 북경지역 관계자 면담

□ 한국상회 면담 개요

- 일시: 2007년 10월 27일(토) 19:00-21:00
- 면담자:
 - 조철 산업연구원 북경수석대표
 - 한국상회 임원(본인의 요구에 의해 익명 처리)

○ 주요 면담 내용

- 중국경제 모니터링 자문위원 위촉 수락
- 중국 한인상회에는 현재 600개 업체가 가입해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음.
- 북경투자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화이므로 향후 이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기업들은 중국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편이며 우리 대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 최근 북경지역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 및 문제점 청취
- 최근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개인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신노동계약법의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노동계약법 시행시 상당히 유연성있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
-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 파견 주재원들의 문제점과 유학생들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청취

□ KIEP, 북경수출입은행 지원 관계자 면담

○ 일시: 2007년 10월 28일(일) 12:00-14:00

○ 면담자:

- 지만수 KIEP 북경지원장
- 탁세령 수출입은행장

○ 주요 면담 내용

- 중국경제 모니터링 자문위원 위촉에 수락하고 적절한 전문가 수명도 추천해주기로 약속(수출입은행)
- 12월초 개최 예정인 중국경제 모니터링 사업 주관의 국제세미나에 중국 측 참석자 알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KIEP)
- 중국경제 모니터링 사업에 중국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원고 투고와 리스크 모니터링 포함)
-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지원장 말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중국경제모니터링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자료 축적이 많아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언(전략적 제휴도 가능하다고 하나 구체적 수요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였음)
- 우리 정부의 대중국 EDCF 정책 개선 방안 청취

□ 기타 사항

○ 중국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

-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북경지역에 안개가 낀과 동시에 매연이 겹쳐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해 북경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
- 10월 27일 위해-북경간 항공일정이 3시간 늦어짐에 따라 당초 토요일 오후에 면담하기로 하였던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관계자 면담은 부득불 취소 ☹